

# 현대의학의 발전과 사회윤리

현대의학은 눈부신 발전으로 인류를 질병에서 해방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발전의 뒷면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질병, 사고, 사회적인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첨단의학이 신비의 베일을 벗기는 데만 열중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고집한다면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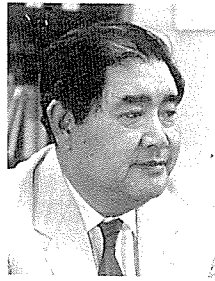
## 한계적 醫療에 찬반론

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과거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의학적인 면에서는 첨단에 속하는 것이지만 실제 이를 사람에게 적용하는 데는 사회윤리 또는 개인의 권리와 관계되는 문제가 내포된 것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즉 첨단에 속하는 의료기술과 이론에 속하지만 이를 일상의료로 정착시키는데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의료를 한계적 의료(Critical Medical Care)라고 한다.

한계적 의료의 실천을 놓고 사회적인 찬반의 소리가 높으며 이러한 문제는 의학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사회의 이해와 협력없이 극복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계적 의료는 그 나라, 그



文國鎮

(고려대명예교수/대한법의학회장)

사회의 윤리, 도덕, 전통, 종교, 철학, 법률, 경제 심지어는 국민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한계적 의료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인공수정, 인공수태, 사전 성감별, 유전자 조정, 성전환수술, 안락사, 장기이식을 둘러싼 죽음의 정의, 연명술의 한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계적 의료의 일상의료로 정착되는 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 나라, 그 사회의 문화적인 배

경에 의해서 즉 생명관, 생사관, 신체관 및 가족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 사회가 합리성에서 그 가치 기준을 찾는 사회라면 한계적 의료는 그리 큰 저항없이 일상의료로 정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윤리 도덕에 판단기준을 둔다면 좀처럼 정착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한가지 명백한 사실은 현재는 한계적 의료에 속하지만 훗날에는 일상의료로 정착된다는 사실이다. 즉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의료는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

## 한계적 의료에 이해있어야

그러한 가장 좋은 예가 수혈이다. 지난 1667년 첫번째 수혈이 성공되어 사람의 목숨을 구하였을 때 많은 찬사와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두번째 수혈이 실패하자 심한 비난과 반발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 수혈은 전면 금지되었다. 어느 때는 성공하고 어느 때는 실패하는 원인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수혈을 금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2백50년이 지난 1900년에 이르러 ABO식혈형(血型)이 발견되어 '수혈법칙'이 알려짐으로써 수혈은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 그 후로는 실혈로 많은 피를 잃은 환자에게 수혈을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식으로 수혈은

일상의료로 완전히 정착되었다.

이렇듯 의학은 한계적 의료를 양산하고 이에 대한 비난과 반발 속에서 일상의료로 정착되는 역사의 반복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문제가 의학수준의 차원 즉 학문적인 차원에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면 사회와 국민은 이에 관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학의 학문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의 실천인 의료단체의 문제라면 엄격한 윤리성과 도덕성이 강조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즉 의학수준과 의료수준을 엄격히 구분하여 이에 대한 찬반의 태도를 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의학 및 의료의 발전은 단순히 의료인들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 그 사회가 한계적 의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는가에 따라 의학과 의료의 발전에도 많은 차이가 생길 것이 분명해졌다.

즉 의학 발전을 위한 목적과 노력에는 윤리성이 강조되어서 않을 것이며 그 대신 일상의료로 적용하는데는 엄한 윤리와 도덕의 실천을 요구하는 등 분별있는 처사가 그 나라의 의학 발전에 관건이 된다고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현대 의학은 인체의 신비를 파헤치고 질병을 자세하게 분석·분류하여 신비의 영역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새로운 과제, 새로운 질병이 꼬리를 물고 생겨나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들이 파생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식혁명이라 할 수 있는 수정과 출산을 몸 밖에서 행하고 있다. 즉 체외수정된 수정란을 인공자궁에서 자라게 하여 출산시키기 위한 인공수정과 인공자궁은 각각 성공하였으며 이를 연계시키는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성공하여 남녀의 결합없이 그것도 몸 밖에서 출산이 자유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전통사회에서의 일부일처제의 혼인체계가 송두리채 무너지며 생명탄생의 신비는 사라지고 로봇 인간의 양산도 예고되고 있다.

### 새로운 질병 등 예고

이와 함께 인류는 사상 유례없는 풍요의 시대를 맞이하여 포식으로 인한 비만으로 고민하게 되었으며 다이어트, 거식증(拒食症)이 퍼지고, 지나치게 비만하여 지방흡인술(脂肪吸引術)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아프리카의 굶주린 어린이들, 몸에는 지방이라고는 한방울도 없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대조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발전된 현대의학으로 사상 최장의 장수시대를 맞이하여 치매, 알츠하이머병 등 고령화에 따른 질병이 사회적인 문제로 새로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성의

개방으로 에이즈(AIDS)가 만연되어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현대의학은 눈부신 발전으로 인류를 질병에서 해방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발전의 뒷면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질병, 사고, 사회적인 문제가 속출되고 있음에 눈을 돌려야 하게 되었다.

모든 과학이 그렇지만 의학도 문화와 통합이 되풀이 거듭되는 속에 발전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현대의학은 분업화(전문의)되다 못해 지금은 세전문화(細專門化)시대로 들어가고 있다.(예: 手外科 등)이렇게 지식이 전문화되다 보면 전체를 망각하고 그 목적마저 가려지기 어려워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쉽다. 즉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세전문화된 의학이 그 신비의 베일을 벗기는데만 열중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고집한다면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된다. 첨단의학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의 명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의 의학은 의학만으로 보는 시대는 끝났고, 생물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역사학, 법학 및 윤리학 등과 제휴된 관점에서 보는 의학으로 그 시야를 넓혀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